IFES

뉴스레터

2024년 7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22호(7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12
3. IFES 브리프 15
4. Fellowship 사업 17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19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5
2. 언론 속의 IFES 26
3. IFES 도서관 27
4. 예정사항 29
5. 안내사항 30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IFES 브리프

Fellowship 사업

북한·국제 정세 동향

IFES

1. 학술활동

가. 제9차 삼청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6월 13일(목) 19: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前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드니 사일러 前분석관은 냉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과 미국의 정권에 따라 나타난 국가행위를 분석하고, 이후 한반도에 나타날 미래를 전망하면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략적 목표와 전술, 그리고 세부절차와 과정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핵문제 전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가 도발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북한이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 결국에 현상 변경을 성취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정권 생존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지난 30년에 걸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제사회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 속도를 늦춰왔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이 2018년 당시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는 공식(formula)을 주장한 것은 정말로 비핵화를 원했던 것이 아닌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식이었을 뿐 비핵화 공약(commitment)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여러 장애물과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대러 접근에 관해서는 북러 간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핵은 물론 재래식 군대의 위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분야는 공군력, 해군력, 미사일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나. 2024 평화포럼 (Peace Foru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6월 24일(월) 13:00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대만 중국문화대학(Chinese Culture University)과 일본 소카대학(Soka University) 공동으로 '2024 평화포럼(Peace Forum)'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동아시아 질서 변화 속의 평화와 갈등'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이관세 소장(박재규 총장 개회사 대독)은 "지난해 포럼에서는 국제체제에서의 '협력', '공존', '상호의존'이라는 주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올해 우리는 평화와 갈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질서의 양상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리콴첸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위원과 치아인웨이 중국문화대 조교수의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를 통해 본 거버넌스의 질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주제로 발표 했으며, 이후 딘올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과 하르트무트 렌츠 소카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 베셀린 포포프스키 소카대 교수의 '평화를 위한 아젠다'와 하르트무트 렌츠 소카대 교수의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신뢰 개념화'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수안싱린 중국문화대학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제3세션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동북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의 현실과 본질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 후 남북관계와 중국-대만 양안관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대만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양안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조나단 럭허스트 소카대 교수와 슌웬왕 중국문화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남대, 소카대, 중국문화대학는 동아시아 평화연구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과 상생으로의 길: 힘과 상호의존을 넘어서'라는 대주제로 일본 소카대학에서 진행한 바 있다.

다. 대만 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진 공동 라운드테이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6월 25일(화) 10:30 대만 담강대학교를 방문, 이대중 담강대 국제전략연구소장 일행과 함께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동 세미나에는 이대중 담강대 국제전략연구소장, 옹명현 담강대 명예교수(前소장), 마준위·임경우·구양예·무경한·임소견 담강대 교수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딘올렛 부소장, 이상만·임을출·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 상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반도와 대만에 대한 영향 △북-러가 긴밀하게 접근하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문제 △양안관계 즉 대만해협 위기시 한국의 입장(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투입을 가장 걱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한편, 양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라. 대만 남화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6월 24일(월) 18:00 대만 Howard Civil Service International House에서 장유량(Yu-Liang Chang) 남화대 사회과학대학장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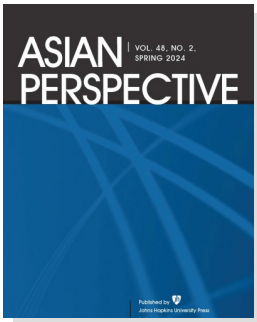
동 간담회에는 장유량(Yu-Liang Chang) 대학장, 손국상(Kuo-hsiang Sun) 남화대 교수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의 남북관계 동향 △6.19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등 북러 경제 군사 협력 관계 평가와 전망 △2024년 중국 양회를 통해 바라본 대내외 정책 변화 등 중국의 대내외 추진 전략과 전망 △양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등 대만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양안관계 변화와 동향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한편, 양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마.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48, No. 2, SPRING 2024) (2024. 6.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8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 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Special Issue on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Europ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Part 2* *Guest Editors – Niall Duggan and Ágnes Szunomár*

Chinese Investment Scope behind the "14+1" Initiative:
The Effects of Chinese FDI and BRI Investment on CEE Exports
Martina Gottwald-Belinic and Robert Sonora

Chinese Investment in the Europe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Niall Duggan, Bas Hooijmaaijers, and Anabela Santiago

Chinese Investments in the European Energy Sector:
From Merger Control to Investment Screening
Alexandr Svetlicinii

The Great Connection - The Budapest-Belgrade Railway Project and Its Significance for Hungary's Foreign Policy Identity
Tamás Peragovics and Ágnes Szunomár

Korea – Politics & Society
Revisiting Health Security Governance:
The Korean Biosurveillance Regime from Biopolitics to Biocitizenship
HyunJung Kim

China in the Worldn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Through the Belt & Road Initiative and Vietnam's Reception
Julia Luong Dinh, Ha Hai Hoang, and Cu Thi Thuy Lan

China's Puzzling Participation i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 Haiti
Jing Chen

The Baltic States, China, and Taiwan
In Dire Straits: The Baltic States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Aleksander Lust

『ASIAN PERSPECTIVE』(VoL. 48, No. 2, 주요 내용)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출판하는 Asian Perspective 제48권 2호(2024년 봄)가 발간되었다. Project Muse에서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https://muse.jhu.edu/issue/52594*)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Europ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를 주제로 했던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2012년 이후 중국과 16개 중·동유럽(CEE) 국가 간의 공식적인 경제 협력 관계 구축을 논의한 여러 논문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 투자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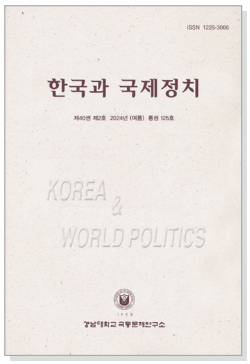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농업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사업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가 유럽 시장 내 무역 흐름에 기여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또한, 특집호 논문 외에도 이번 호에는 △한국의 보건안보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 대응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한국의 디지털 바이오 감시가 어떻게 새로운 바이오시민권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베트남의 중국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 수용 등이다.

그리고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가 대만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한 중국의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 발트해 국가들의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동맹 정치, 경제 관계, 국가 정체성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하는 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지난 특별호를 포함한 본지의 모든 호(1977년부터 2024년까지)는 Project M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use.jhu.edu/journal/733*)

2) 『한국과 국제정치』(제40권 제2호 2024년 여름, 통권 125호) (2024. 6. 30.)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 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0권 제2호, 2024년(여름)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목차 〉

· **세력전이 이론에서 패권 경쟁국 쌍(dyad)의 동맹전이 논리와 형태**
- 박주현(경제사회연구원 안보센터 운영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쐐기전략과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 왕하오 (복단대학 미국연구센터 부교수)
- 한바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후보생)
- 뉴샤오 (상해정법학원 정부관리학원 강사)

· **북미협상의 진전과 한국의 중재: 한국의 유인책과 북미의 이익 부합**
- 고광영(평화나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한국과 국제정치』(2024년 여름, 통권 125호) 주요 내용

『한국과 국제정치』40권 2호는 4편의 일반논문을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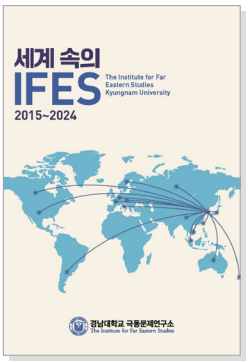
박주현 객원연구위원은 패권 경쟁국 간의 세력전이도 동맹전이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816년부터 1997년까지 동맹의 효용지수 변화량과 국력비율의 변화량 간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배국의 동맹 효과는 상대적 국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아졌으며, 도전국의 동맹 효과는 지배국보다 항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배국이 국제질서의 수립 시기부터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동맹을 형성한 반면, 도전국은 국제정치 상황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동맹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왕하오 부교수·한바다 박사후보생·뉴샤오 강사는 국제관계학의 동맹이론 중 쐐기전략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탐구하고자한다. 중국의 경제학계 및 재계가 한·미 반도체기술동맹을 단순한 산업정책의 협조로 보는 것과 달리, 중국의 정치 엘리트와 국제관계학계는 쐐기전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을 억제하려는 동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정부는 국산 대체, 대미 투쟁, 한국에 대한 경제 여론 압박과 한·중 반도체 협력 추진 등 두 종류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 대응하면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형성의 저지, 동맹의 분열과 이탈, 재편 등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쐐기전략은 자국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정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광영 상임연구위원은 북미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시도가 상반된 결과를 야기했던 사례들에 주목하여,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이론의 중재 이론 중 제3국의 레버리지 활용 논의에 기반하여 '유인책 제시'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다섯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제3국의 중재에 있어서 레버리지 활용 여부는 갈등 당사국들로 하여금 손익계산을 새롭게 하여 중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북미협상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철 부교수는 2023년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이 현철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상징적인 사진에서 출발하여 상징공간이 가지는 기억의 정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를 통해 지금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고, 북한은 현 시대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및 남한과의 대결을 우선시하고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세계속의 IFES』(2015~2024) (2024. 6. 1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제무대에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한반도국제포럼(KGF)·평화포럼(Peace Forum)을 포함하여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학술행사 및 해외 학술지 발간, 해외 학술교류·협력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향후 연구소는 그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협력 및 연구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구성과에 대한 글로벌 파급력 제고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민·관·산·학·연을 아우르는 연구 허브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본 자료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차〉

- 요약 (Summary)
- 한반도 국제포럼 (Korea Global Forum)
- 평화포럼 (Peace Forum)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 해외학자 초빙 프로그램
  (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
- 해외학자 초청 세미나
- 해외 국제학술회의
  미국 / 중국 / 일본 / 독일 / 캐나다 / 인도
- 국내 국제학술회의
- Asian Perspective
- 연구서 발간 현황
- 해외 주요 협력기관 (MOU)

2. 교수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1)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주최 '제47회 한반도 미래비전과 동북아 평화구축' 정책포럼 참석 지정토론
- 일자/장소: 2024. 6. 22.(토)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회의실
- 내용 : '코리아 두 개 국가론-국제정치적 함의'

이병철 교수

1) 한국원자력학회 주최 '농축 핵연료 수급 현안과 한미원자력협정' 워크숍 참석 발표
- 일자/장소: 2024. 6. 10.(월)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내용: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핵무기 사용에 전용될 수 있음.

김상범 교수

1)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평화들 PEACES 제3권 1호) 논문 게재
- 일자: 2024. 6. 1.(토)
- 내용: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의 평가 및 전망'

안호영 석좌교수

1) 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 '통일부 장관과의 토론회' 참석 발표
- 일자/장소: 2024. 6. 12.(수) / 롯데 호텔
- 내용: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현재도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임을 설명

2)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 캠퍼스 창설 10주년 세미나' 참석 토론
- 일자/장소: 2024. 6. 14.(금) /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 내용: 미중 구도에서의 한국 외교 추진 방향 설명

3) 한미동맹재단 주최 '해군참모총장과의 토론회' 참석 발표
- 일자/장소: 2024. 6. 19.(수) / 한경협 회관
- 내용: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우리 해군이 합동훈련, 동남아 국가에 대한 OSA(Overseas Security Assistance)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

최영준 초빙교수

1) (사)사회통합연구원 주최 '제8차 한백포럼' 참석 전체 사회
- 일자: 2024. 6. 18(화) /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
- 내용: 남북관계 정세 진단과 우리의 대응 방향

2) 한국행정학회 주최 '2024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참석 토론
- 일자/장소: 2024. 6. 21.(금) /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 내용: 북한사회행정연구회-새로운 통일담론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YTN '이슈플러스' 출연
- 일자: 2024. 6. 3.(월)
- 내용: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北, 오물풍선 살포 돌연 중단

2) YTN '뉴스나우' 출연
- 일자: 2024. 6. 3.(월)
- 내용: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남북, 강대강 대치

3) YTN '뉴스퀘어' 출연
- 일자: 2024. 6. 18.(화)
- 내용: 푸틴, 24년 만에 방북... 미리 보는 1박 2일 일정

4) YTN '뉴스업' 출연
- 일자: 2024. 6. 20.(목)
- 내용: 푸틴, 짧고 숨 가빴던 방북... 북러 정상이 남긴 것은?

5) KBS '남북의 창' 인터뷰
- 일자: 2024년 6월 22일(토)
- 내용: [요즘 북한은] 평양 달리는 전기차…"720km 주행 가능"

2. 교수 연구활동

김상범 교수

1) 일본 TBS 방송 인터뷰
- 일자: 2024. 6. 11.(화)
- 내용: 한러관계 복원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움직임과의 관련성

안호영 석좌교수

1) 한국일보『안호영의 실사구시』기고
- 일자: 2024. 6. 3.(월)
- 내용: 북한 체제의 변화를 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한 의견 제시

2) 코리아타임스 (The Korea Times) 기고
- 일자: 2024. 6. 19.(수)
- 내용: “Will North Korea change?(북한이 변화할까요?)” 의견 제시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칼럼 기고
- 일자: 2024. 6. 21.(금)
- 내용: ‘선진 부동산금융 활용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3. IFES 브리프

IFES 브리프(요약)

남북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

(2024. 6. 3.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0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단 문제는 남북간에는 갈등 사안으로, 우리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 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충돌하는 이슈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전단 등 살포가 금지되었으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후 남풍이 부는 때가 되자, 탈북자 단체 등이 잇따라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냈다고 발표하였고, 북한이 5월 25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한편, 남쪽으로 전단을 내려 보내겠다는 보복 조치를 공언하였으며 28일 바로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바로 다음 날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량의 몇 십 배로 건 당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오물 전단 살포는 남북간에 어렵게 쌓아온 화해와 협력 및 신뢰의 기반을 더욱 고갈시키고 적대감은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언급한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드론 침투 등 직접적 대응에 나선다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수준은 급격히 고조될 것이다. 게다가 남북문제를 매개로 한 남남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이 '응징 보복' 차원에서 전단을 살포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이들 단체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단 문제의 해결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간에 기본적인 통신채널도 단절되어 우발적 충돌이 더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추가적인 한반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와 드론 대응 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남북간 대립의 상승작용으로 이어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단 문제는 남북의 조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가시 돋친 언사를 통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차분히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우리 안에서 전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들과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IFES 브리프(요약)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 함의와 영향

(2024. 6. 2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였다. 기존에 체결한 조약, 선언 등을 모두 대체하는 이 협정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정치·군사 동맹관계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하였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 제4조는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와 유사하다. 다만 자위권 행사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점이 차이로서 이는 상황변화에 따른 퇴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정체, 남한과의 관계 단절 선언 이후 신냉전 상황을 활용해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복원을 준비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물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으로서 향후 상당 기간 김정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안보경제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통해 자국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고, 다자경제안보국제기구 참여 기회 확보,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다양한 전략무기체계의 고도화에 필요한 군사기술, 경제와 민생개선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등 핵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협정 제4조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서 러시아의 한반도 전쟁 개입 가능성,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조항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서조항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온 포탄 등을 향후 보다 제도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것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을 넘어 확전을 부추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군사안보 분야 외 정보통신기술, 우주, 생물, 원자력,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분야에서의 북러 간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 전략전술무기체계의 고도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조약과 선언에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을 일관해서 지지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정립한 대남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러동맹이 북중러 3각 동맹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한·중·일 외교안보대화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역할에 따라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강(自强)과 함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고도의 외교적 판단과 유연한 전략적,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대응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가 신냉전 구도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하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4. Fellowship 사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펠로 5명(中판 빈빈, 中리아오 무춘, 美김연희, 中양향봉, 日호리야마 아키코)을 대상으로 연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6월중 △2차례 특강지원 △유관기관 방문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 제1차 특강

- 일시/장소: 2024. 6. 4.(화) 14:00~16: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
- 강연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참석자: 펠로 5명,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주요내용: “무역을 통한 동북3성과 북한의 협력”을 주제로 △북한의 산업 체계 △대외무역 정책 △북중 협력의 역사와 무역을 통해 양측이 얻는 이익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 제2차 특강

- 일시/장소: 2024. 6. 11.(화) 14:00~16: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강연자: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
- 참석자: 펠로 5명,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주요내용: 북한과 중국, 양자 간 정치외교 상황에서의 북중관계를 냉전시기와 전환기를 걸쳐 현재까지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설명, 북중관계를 역사적·경험적 맥락을 통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제1차 특강 〉

〈 제2차 특강 〉

다. 통일연구원 방문

- 일시/장소: 2024. 6. 5.(수) 11:00~13:00 / 통일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펠로 5명,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 주요내용: 펠로들의 국책연구기관 이해 및 국내 연구 네트워크 확장 증진을 위해 통일연구원을 방문하여 연혁 조직 설립취지 등 기관소개 시간을 가진 후,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현황 △대북정책 관련 질의응답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라. 남북통합문화센터 견학

- 일시/장소: 2024. 6. 13.(목) 14:30~16:00 / 남북통합문화센터(강서구)
- 참석자: 펠로 5명, 학위과정생 3명,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혜정 통일부 사무관 등
- 주요내용: 남북한 문화이해를 중심으로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영상체험실에 마련된 VR 통일체험 프로그램(통일시대 자동차 여행,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해외 북한학 연구자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 하나원 본원(안성) 견학

- 일시/장소: 2024. 6. 13.(목) 10:00~12:30 / 하나원 본원(안성)
- 참석자: 펠로 5명, 학위과정생 3명,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혜정 통일부 사무관 등
-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입소 후 국내 정착을 위해 이수하는 3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관련 시설(마음건강센터, 하나의원, 직업교육관, IT체험관, 기숙사 등)을 견학하여 연구자들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통일연구원 방문 〉

〈 남북통합문화센터 견학 〉

〈 하나원(안성) 견학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북러 정상회담 관련 동향 종합]

● **개관**

- 푸틴 방북 일시: 2024.6.19(오전 03:00~익일 오전 00:00, 약 21시간)
- 주요 동선
  - 일류신-96(푸틴 전용기) 오전 2:22 평양 순안공항 착륙
  - 김정은-푸틴 '아우루스' 리무진 동승하여 숙소 이동
    * 아우루스 리무진은 금년 2월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차량
  - 오후 12:00 공식환영식 (최선희 외무상, 리일환 당비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여정 당부부장 등 참석)
  - 오후 12:40 확대 정상회담 진행
  - 오후 02:00 김정은-푸틴 단독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 주요 사항
  - 푸틴, 2000년 7월 이후 24년만 북한 방문
  -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우주기지 정상회담 이후 270여일
  - 방북 후 바로 베트남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 **주요 보도**

- 6.18. 방북에 대한 푸틴의 입장문《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게재 (6.18. 노동신문)
- 6.19. 김정은-푸틴 확대정상(전원)회담, 단독정상회담 개최 (6.20.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양국을 정치·군사 동맹관계로 새롭게 재정의
  -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기존 체결한 조약, 선언 등을 모두 대체하는 협정으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 확대정상회담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방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남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윤정호 조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장 겸 대외경제상, 임청일 외무성 부상 참석
- 6.19. 러시아-북한 두만강 교량 건설 관련 협정 서명 (6.20. 노동신문)
  - 북·러 물류 협력 활성화 가능성 증대

- 6.25. 푸틴, 김정은 총비서에게 감사 전문 전달 (6.25. 노동신문)
  • "당신은 러시아 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정은 총비서 러시아 초청

• 6.2. 김강일 국방성 부상, '오물풍선' 대남살포 '잠정중단' 선언 및 대북전단 재개 시 오물풍선 맞대응 예고 (6.2. 조선중앙통신)

• 6.9. 김여정 당 부부장, '대한민국(한국)'의 대북전단 및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새로운 대응 경고 (6.9. 조선중앙통신)

- 김여정 당 부부장은 북한당국이 6.6.~6.7. 대북전단에 대응해 6.8.~6.9. 오물풍선으로 대응했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

미국/일본

• 6.9. 미·일, 첫 방위산업협력협의 개최, 미사일 공동생산 논의 가속화 (6.11. KBS)

- 윌리엄 라플란테 미국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후카사와 마사키 日방위장비청 장관은 지난 9일 도쿄에서 첫 DICAS 회의 개최

• 일본, '러 군사 전용 물자제공' 중국 기업 및 단체 대상 제재 검토 (6.13, 16 KBS)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처음

• 미국, 우크라이나와 10년 안보 협정 (6.14. KBS)

-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미군 파견,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지원, 정보 공유 확대,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와 훈련,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기지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G7은 러시아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

중국/러시아

• 6.18. 한·중,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개최해 北 문제 논의 (6.18. 뉴시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수석대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참석

  * 같은 날(18일) 푸틴 북한 국빈 방문

■ 해외 전문가 논평

〈특집〉 러시아 푸틴 대통령, 평양 방문

■ Chris Monday (동서대 교수): “북러 군사 동맹은 오래 지속될 것” (NKPRO, 6.14.)

-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가 북한과 러시아를 지속가능한 동맹으로 묶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많음.
- 과거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과 마찬가지로, 푸틴의 러시아는 소위 “퇴폐적인 서구 문명”을 상대로 ‘영구전쟁’ 사회에 돌입했다. 이렇게 된 이상,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은 푸틴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것.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의 무자비한 군사주의를 미 제국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으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에게 북한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군수품 생명줄이 되었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여태껏 밀리지 않은 것은 북한산 무기 덕분
- 러시아로부터 스탈린주의를 수입했던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푸틴주의를 수입해 자신의 정권 및 통치기제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더 위험한 북한”으로 변신했음.

■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푸틴 방북은 G7에 대한 푸틴의 대답” (연합뉴스, 6.18.)

-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한국전쟁 이래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 푸틴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동남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과 탄도미사일 공동 생산에 합의할 것을 우려... 이는 북한이 비축한 탄약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
-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을 경우 "김정은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울 핵전력으로 미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다.“

■ Sue Mi Terry(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Stephen Sestanovich(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북러 협정의 의미” (미국외교협회, 6.19.)

- 러시아 엘리트 내부에도 김정은의 “절친”이 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존재할 것. 러시아 외교관들은 다른 국가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느라 분주해질 것
- 푸틴이 “서방”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했다는 뜻
- 두 국가 모두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공동 방어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낮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파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북러 간 상호 지원은 작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방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음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 모두에게 크나큰 위협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됨.

■ Victor Cha(CSIS 한국석좌), Ellen Kim(CSIS 선임연구위원): "북한과 러시아의 새 안보 협정" (CSIS, 6.20)

- 현재의 북러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임.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핵 · 미사일, 잠수함 기술은 미국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을 것. 또한, 북러가 형성한 대안적 경제관계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 레짐을 정면으로 회피해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
-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협정은 단기적,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 장기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임.

■ Hugo von Essen(스톡홀름 동유럽연구소 분석가): "북중러 삼각협력 이면의 차이점들" (The National Interest, 6.21)

- 북러 관계의 강화는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러시아의 지원으로 더 대담해진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미일, 대만까지 협력이 강화된다면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방해가 된다.
- 중국이 북러와 엮인다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대체할 '책임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중국의 체면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비판할 명분 상실
- 중국이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서방과 미국의 자원을 더욱 집중시켜 중국을 곤란하게 할 것.

■ Anatoly Antonov (주미 러시아 대사) "푸틴의 북한·베트남 방문, 미국의 정책 실패 보여줘" (스푸트니크 통신 6.22)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은 미국의 '독재'와 제재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러시아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개선은 차치하고 악화하는 상황이 잠시 멈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 Yun Sun(스팀슨센터 중국 연구위원) "푸틴의 방북에 대한 중국의 반응" (38 North, 6.21.)

- 북러 밀착이 중국에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이미 정신없는 미국의 시선을 추가로 분산시켜주기 때문. 또한, 북러 상호협력 덕분에 중국이 북러 양측의 유일한 후원국이라는 오해를 벗어낼 수도 있음.
- 중국은 현 상황을 '북중러' 삼각의 관계라기보다는 '북중', '북러', '중러' 3개의 양자관계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서방,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추후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넓혀놓으려는 계산이 반영된 것.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IFES

1. IFES 동정

가. 2024 경남대 통일교육연수: 현장실습형 통일심화교육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전쟁, 분단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2024 경남대 통일교육연수: 현장실습형 통일심화교육’을 6월 21일(금)과 22일(토) 양일간 지원했으며, 연수에는 공공인재대학, 미래라이프대학 등 7개 단과대학 학부생 33명과 조재욱 교수(통일교육연수 주임교수)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1일차에는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도서관 특수자료실 견학 △박정진 부총장 환영인사 △조진구 교수 특강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기념 촬영 및 환담이 있었다. 이어 국회에서 △최형두 의원 주관 “국회의 역할과 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경남대생들의 역할” 주제로 대담 △국회 본회의장 참관 후 국회박물관을 견학했다. 또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연천)에서 마경조 센터장 특강과 탈북민 토크콘서트에 참가했다.

2일차에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시청 △‘KTX 통일호’ 탑승과 ‘통일광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임진각(파주)에 방문해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망배단’과 ‘임진강 독개다리’ 등을 보고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연수는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 문제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를 구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과정이었다.

나.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공사 기간: 2024. 6. 27. ~ 8. 14. (총 48일)

2. 언론 속의 IFES

『IFES 브리프』 인용 보도 (2024. 6. 5.)

뉴스1 등 2개의 국내 언론에서 『IFES 브리프』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대남 대북 삐라로 '남남갈등' 확산 우려...관리 필요"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남북 간 '삐라'(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갈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은 5일 '남북 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이라는 제목의 극동문제연구소(IFES) 브리프를 통해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이들 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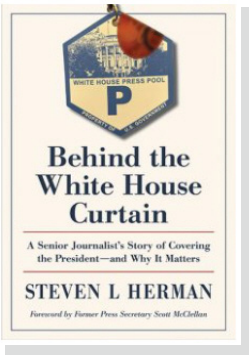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전국으로 살포된 대남전단(오물풍선)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런 남남갈등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보복 조치로 대남전단이 대량으로 뿌려져 우리 측에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피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언론보도 현황

연번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비고
1	6월 5일	뉴스1	"대남·대북 삐라로 '남남갈등' 확산 우려...관리 필요"	
2	6월 5일	데일리중앙	"대남·대북 삐라로 '남남갈등' 확산 우려...관리 필요"	

3. IFES 도서관

가. 추천도서



제 목: Behind the White House Curtain (백악관의 이면)
저 자: Steven L Herman (스티븐 L 허먼)
출간일: 2024년 6월 4일
출판사: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켄트 주립대학교 출판부)
쪽 수: 248쪽

스티븐 허먼은 기자로서 60여 개국에서 취재했으며, 일본에서 18년 동안 취재기자로 근무하다 2010년부터 한국에서 외신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국장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 기간과 바이든 행정부의 첫 8개월 동안 워싱턴 지국장과 백악관 지국장을 지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선임기자다.

저자에 대한 소개가 말해주듯이 허먼 기자는 여러 국가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한 몇 안 되는 베테랑 기자다. 그가 쓴 이 책은 1970년대 네바다 핵실험이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등 수많은 사건, 사고, 전쟁 및 민감한 국가 간 갈등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원칙을 그의 취재 경력의 궤적을 따라 그 여정을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기술한다.

미국 언론사에도 서열이 존재할까? 저자는 백악관 브리핑 룸에 배정되는 언론매체에 사실상의 순위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미국의 주요 매체인 ABC, CBS, NBC, 그리고 CNN과 Fox는 브리핑 룸의 맨 앞줄에 주로 착석한다. 나머지 라디오와 TV네트워크사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뉴스 통신사 기자는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어 대통령과 함께 따로 문답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부분은 글로벌 미디어, 특히 뉴스 통신사의 영향력과 정보의 흐름에 관한 미디어 이론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먼 기자의 한반도 이슈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 간접적인 취재 경험은 어땠을까? 저자의 눈으로 바라본 한반도 이슈 중 가장 강조된 뉴스이벤트는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었다. 스테파니 그리샴이 한국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경비병들과 몸싸움을 벌여 이동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에피소드와 함께 세기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불리는 2018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3. IFES 도서관

당시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장시간 대통령 전용 비행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자신의 경험을 '김정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에어포스 원에서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제대로 갖춰진 기내 욕실용품에 대한 묘사는(p.33-34)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부분이다.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의 취재 방식과 같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은(p.106) 향후 문화 간 차이를 좁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위험한 국제 재난이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당시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에피소드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실제 발언자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와 언론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백악관과 그 취재현장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 신간 특수자료 안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연구자들이 남북관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6월중 신간 특수자료 31권의 도서를 입수하였다.

〈 입수자료 주요 목록 〉

자 료 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김일성 전집 (증보판) 24~29	김일성	조선로동당 출판사	2023
김정일 전집 46~58	김정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2023
친일로 얼룩진 죄악의 행적	김철민	평양 출판사	2023
붉은 넋 (장편소설)	장성철	문학예술 출판사	2023
김정은 군수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드리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한 답례연설(제2판)	김정은	조선로동당 출판사	2024
김정은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분발하자	김정은	조선로동당 출판사	2024
김정은 조선인민군 창건 76돐을 맞으며 국방성을 축하 방문하여 한 연설	김정은	조선로동당 출판사	2024

4. 예정사항

가. 中상해정법대학 관계자 방문 간담회 (2024. 7. 18.)

나. Fellowship 사업 운영

• 펠로 O.T (7. 1. 월, 日미아모토 사토루)

• 특강 2회 (3차: 7. 2. 화 / 4차: 7. 17. 수)
- 3차: 문장렬 (前국방대 교수, 가제: 평화안보와 대한민국 자주국방)
- 4차: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제: 동아시아 안보, 한국 문제)

• 국내 워크숍 개최
- 기간/장소: 7. 29.(월) ~ 7. 31.(수) 2박 3일 / 충남 공주·부여

5. 안내사항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